

# 전복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새로운 임꺽정

《악당 임꺽정》 펴낸 구효서씨

의적 임꺽정을 일개 악당으로 전락시킨 소설이 나왔다.

화제의 주인공은 《악당 임꺽정》을 펴낸 구효서씨.

통념과 달리 임꺽정은 뛰어난 칼솜씨와 계략으로 권력을 탐한 모리배에 불과했다는 게 작가의 주장이다.

작가의 재기발랄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이번 작품은 벽초의 《임꺽정》에 대한 문학사적 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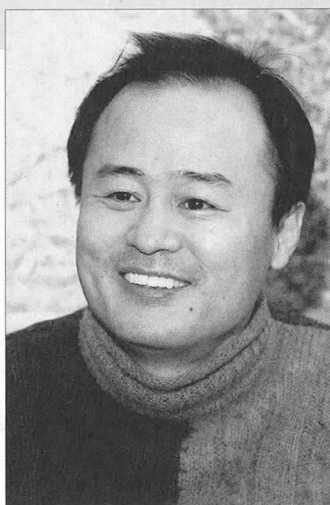
조선의 대도 임꺽정은 의적이거나, 아니면 도적패의 한 우두머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역사적 자료는 일천하다. 그럼에도 그가 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벽초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꺽정》 덕이다. 벽초의 탁월한 솜씨와 식견에 감염된 사람들이 그가 그린 '이미지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다.

## 통념 뒤엎은 재기발랄한 상상력

임꺽정의 고정된 틀을 깨기 위해 소설가 구효서씨(44)가 모험에 나섰다. 그는 최근 펴낸 장편소설 《악당 임꺽정(1·2)》(해냄)에서 임꺽정을 의적에서 '악당'으로 탈바꿈시켰다.

“벽초 선생은 창작 당시의 사회를 반영해 《임꺽정》을 썼습니다. 식민지시대 민초들의 꿈을 작품에 반영했던 것이죠. 임꺽정은 필요에 의해 창조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임꺽정의 이미지는 의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벽초 선생도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지 해체작업을 위해 그가 내레이터로 선택한 인물은 임꺽정의 종사 노릇을 한 서림. 서림은 노비보다 못한 아전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분철폐를 내세우며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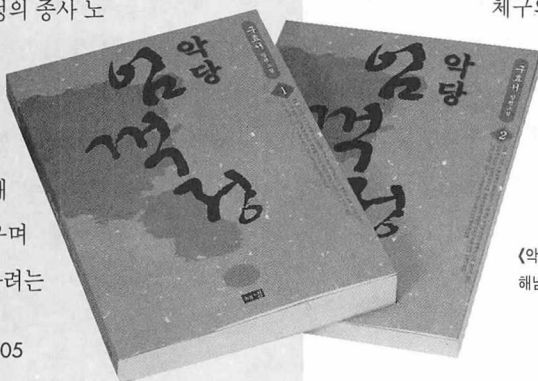


구효서씨

“임꺽정은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가 신분철폐와 평등사회 구현을 앞세운 것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그는 권력의 속성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임꺽정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막상 임꺽정과 만난 서림은 그 외모부터 마뜩찮았다. 소문에 따르면 장정 뿔은 거뜬히 제압할 정도의 우람한 체격에 턱에는 까치집 같은 수염이 나 있을 임꺽정은 없었다. 단지 턱에 수염 몇 가닥 나 있는 왜소한

체구의 임꺽정이 있을 뿐이었다. 아무리 보아도 그의 낡은 2백



《악당 임꺽정(1·2)》  
해냄/A5신/352면 내외/각 7500원

명이 넘는 식구를 통솔할 인물이 아닌 듯했다.

서림은 오로지 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임꺽정의 종사가 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서림은 전횡을 일삼는 임꺽정에게 실망한다. 서림의 눈에 비친 임꺽정은 남다른 칼솜씨와 계략으로 끊임없이 권력을 탐하는 모리배에 불과했다.

“임꺽정은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신분철폐와 평등사회 구현을 앞세운 것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그는 권력의 속성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임꺽정의 이중성은 대의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당시의 실력자 윤희원과 은밀히 거래하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룬다. 임꺽정은 자신의 안락을 위해 권력자와 결탁할 뿐 아니라 부하의 목숨까지 거래하는 악당이였다. 작가는 이 장면을 부각시켜 임꺽정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정치가들과 다를 바 없는 협잡꾼으로 묘사한다.

## 벽초에 도전한 즐거운 모험

“임꺽정은 고정된 이미지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세월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적으로만 여겨져 왔기 때문이지요. 물론 임꺽정이 의적으로 승양받아온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민초들의 열망이 임꺽정을 의적으로 만들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저는 이 낡은 이미지를 흔들고 싶었습니다. 굳어버린 이미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작가의 책무지 않습니까. 벽초 선생을 흠모하는 독자들은 무척 화를 내겠지만, 저한테는 즐거운 모험이었습니다.”

구효서씨는 그동안 《늪을 건너는 법》 《비밀의 문》 등을 통해 파격적인 문체실험을 선보여 문단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앞으로 중세유럽과 80년대 우리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사랑이야기를 쓸 계획이다. 우리시대의 탁월한 이야기꾼으로 자리잡은 그가 또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자못 기대된다. — 오원진 기자